

최태원 광주 방문에 호남 반도체 테마주 다시 들쭉

서산 상한가…금호건설 20.29%·남화토건 13.18% 급등
SK하이닉스 투자 속도전 기대에 연고기업 매수세 몰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지역 연고 기업을 비롯한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남 광주 생산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전기는 전 거래일보다 29.93% (2550원) 오른 1만1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가 3%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6400선 아래로 밀려난 가운데 사실상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금호건설도 전 거래일보다 20.29% (2260원) 상승한 1만34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서산이 30.00% 오른 6760원을 기록했고, 남화토건은 13.18% 상승한 6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신도

상한가인 2만2650원까지 올랐다.

이번 급등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관련 종목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현장 방문과 투자 속도전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 군공항 부지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 예정지를 살펴봤다. 당시 그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판단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경쟁사들이 생산능력을 먼저 확대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를 호남권 생산시설 건설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2기를 조성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관련 투자 규모는 약 400조원으로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연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생산시설을 병행해 조성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실제 들어서면 공장 건설뿐 아니라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협력업체 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 역시 이러한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 등은 전남광주에 기반을 둔 기

업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사업 계획이 알려진 지난 6월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사업 현실성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조정을 받았다. 이날 급등의 경우에는 최 회장의 현장 방문과 발언을 계기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실행 일정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이개호 “여수광양항 하부조직 전략 우려”

“‘양항정책’ 무력화 막아야…사업결정권 등 보장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당량·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광양항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핵심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사로 개편될 경우 독립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중앙 본사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독립 법인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광양항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편성, 의사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 본사로 넘어간다는 뜻”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 온 양항정책(Two Port System)의 한 축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일 법인 체제에서

의사결정권과 재정이 본사에 집중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압도적인 부산항 위주로 자원이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항정책이 흔들리고 부산항 중심으로 정책이 기울면서 광양항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물동량 정체를 겪었던 과거의 전례가 통합 공사 체제에서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 스마트항만 구축 등 광양항의 핵심 현안 사업은 물론 인천항 등 다른 지역 거점 항만의 주요 투자 계획까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 본사의 권한에만 의존하는 하부 조직화를 막으려면 명칭만 바꾼 지사가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광양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항만 단위의 독자적 투자·사업 결정권 △수익의 지역 항만 자체 재투자 권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전남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전남광주 예선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했다.

농협광주본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파크골프대회 현장서…우리 농산물 답례품 홍보도

농협광주본부가 파크골프대회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 농산물 답례품 홍보에 나섰다.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전남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전남광주 예선전’에서 참가 선수와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을 비롯해 노홍기 새농민회 광주시지회장, 윤정숙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장, 황금숙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장과 회원, 범농협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광주본부는 경기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리플릿과 지역 대표 답례품인 우수 잡곡 세트, 건강음료 등을 배부하며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알렸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부 답례품으로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도록 홍보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홍보부스 옆에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현장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참가 선수와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먹거리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농산물 홍보와 함께 지역민이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쳐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12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69p(3.65%) 내린 6,384.24로 장을 마치고 지난 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43.08p(4.83%) 내린 849.19로 장을 종료했다.

수출기업 보험 지원 서울 95%…전남광주는 10%

정진욱 “지역 따라 9.2배 격차…사각지대 해소해야”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추가 무역금융 공급에 나선 가운데,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은 지역별로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무역보험공사 이용기업의 약 95%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비율은 94.6%인 반면 전남광주는 10.3%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수혜율 격차는 무려 9.2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사 이용기업 2만4103개사 가운데 2만2795개사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수혜율이 94.6%에 달했다. 경북 역시 4389개사 중 4000개사가 지원을 받아 91.1%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886개사 중 268개사만 지원받아 수혜율이 30.2%에 그쳤다. 특히 전남광주는 공사 이용기업 1014개사 가운데 보험료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4개사에 불과해 수혜율이 10.3%에 머물렀다. 정진욱 의원은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은 서울 95%, 광주특별시 10% 수준으로 무려 9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인데도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정까지 편성해 수출기

업 지원에 나선 만큼, 무역보험공사도 지역별 지원 격차를 단순히 지자체 예산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지원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수출기업이 소재지역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임에도 소재지역에 따라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 비율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추정 1000억원과 자체제원 770억원을 활용해 총 3조 원 규모의 추가 무역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역 전세사기 피해 1649건·1770억…TF 꾸린다

피해자 3명중 1명 청년…민행배 시장 “유형별 대응책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액이 1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가운데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영배 의원(광양3·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649건, 피해 인정액은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전남 지역에서 948건, 901억원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 지역은

701건, 869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전남이 더 많았지만 피해 인정액은 광주가 더 컸다. 피해 신고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에서 182건, 광주에서 311건 등 모두 4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 피해 인정 건수는 광양이 490건, 광산구가 484건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67.2%는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 체계가 권역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옛 광주지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지원, 월세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이사비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에 맞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적인 자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행배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신고센터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곧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피해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집단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는 한편 개별 피해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코스피, 두달 만 6400선 붕괴
삼전·하늬 4% 이상 동반 하락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반도체 대형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약 두 달만에 6400선 밑으로 내려왔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p(3.65%) 내린 6384.24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0.72% 하락한 6578.17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6400선을 내렸다. 지난 6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며, 지난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이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194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기관도 110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4792억원, 기타법인은 6621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소화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실적발표 당일 2.42% 내린 데 이어 이날도 4.39% 급락해 25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이날 종가는 160만5000원(-4.52%)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주(3.71%), SK스퀘어(6.29%), 삼성전기(3.82%), LG에너지솔루션(0.75%), 현대차(1.39%)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지주(1.01%)와 기아(1.22%), 셀트리온(0.45%), 하나금융지주(0.08%), 삼성화재(1.63%), 메리츠금융지주(1.96%)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3.08p(4.83%) 떨어진 849.19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증가 892.27보다 낮은 885.53에 출발한 뒤 장중 891.79까지 올랐으나 상승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849.07까지 밀렸고,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24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억원과 22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예코프르는 8.49% 하락한 8만4100원에 마감했고, 예코프로비엠은 10.25% 급락한 11만56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엘앤에สบ이오(0.89%)와 하림지주(1.67%), 동국제약(5.58%), 카카오게임즈(4.49%), RF머트리얼즈(1.13%)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 급락에는 국내 증시 휴장 기간 불거진 오픈AI의 매출 규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의 9월 말 기준 연한산 매출이 약 500달러로, 시장에 알려진 700억달러보다 낮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AI 투자 과열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이후 매출 집계 방식과 기존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위축된 투자심리는 쉽게 안은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는 한편 개별 피해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